

“영화 촬영장 그리웠다”…가정파탄 의혹은 “법의 심판에”

박시후, ‘신의악단’으로 10년 만 스크린 복귀…北 보위부 소속으로 정진운과 호흡

“영화 촬영장이 그리웠어요. 그만큼 영하 30~40도 추위 속에서도 웃음을 잊지 않고 행복하게 활동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영화 ‘신의악단’ 제작 보고회에서 박시후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여서 기대가 됨다”며 10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소감을 밝혔다.

김형협 감독의 ‘신의악단’은 대북 제재로 국제원조가 막힌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가짜 친양단을 창설하는 이야 기를 그렸다.

박시후는 가짜 친양단을 조직하는 북 한 보위부 소좌 박교순을 연기했다.

그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교순

이 악단 단원들과 교류하면서 변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며 “대본 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작품의 힘에 끌렸다”고 돌아봤다.

박시후는 지난 8월 한 가정의 파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 하며 재차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 서 한 인플루언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에 박시후가 자신의 가정 파탄에 책임 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박시후

은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그는 질의응답에 앞서 입장장을 밝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영화 제작보고회

는 15년 만인데,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

인 일을 언급하는 것에 만감이 교차한 다”며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입을 뗐다.

이어 “다만 작품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 법적 절 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심판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시후가 연기한 교순과 대립각을 세 우는 북한 보위부 대위 김태성 역은 2A M 정진운이 맡았다.

정진운은 “교순과 경쟁하는 관계여

서 긴장감과 텐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했

는데, 영하 40도 가까이 되는 환경에

촬영하다 보니 전우애가 생겼다”며



지난 8일 열린 영화 ‘신의악단’ 제작보고회에서 감독 및 배우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시후와) 너무 친해진 것이 화면에 보일까봐 걱정됐다”고 웃음 지었다.

‘신의악단’의 설원 장면은 몽골과 형 미있었다”며 “기대가 많이 되는 좋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신의악단’ 메가폰을 잡은 김형협 감독은 아이러니 속에 숨겨진 휴머니즘이

영화의 최대 매력이라고 소개했다.

김 감독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생 각되는 북한에 가짜 친양단이 조직되는 게 아이러니”라며 “궁극적으로 보여드 리고자 했던 건 인간의 본질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극 중 친양단원이 부르는 수많은 노래 가운데에는 가수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도 들어 있다.

김 감독은 “사랑은 늘 도망가’는 영화 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곡”이라며 “어떻게 풀어낼지 많이 고민했고 잘 활용했다”고 귀띔했다.

tvN 오디션 프로그램 ‘살생긴 트롯’에서 톱7에 들었던 배우 한정원이 ‘북한 판 임영웅’으로 등장한다. 태항호, 장지 건 등 개성 있는 배우들과 문경민, 최선 자 등 중견 배우들이 ‘가짜 친양단’ 멤버로 출연했다. /연합뉴스

척척의 오늘의 운세

음력 10월 21일
천문역원 (062)673-2427



쥐띠: 미끼를 달아놓은 낚싯대에 잡고기들의 일침이 찾다. 포인트를 옮기든지, 때를 다시 잡는 것이 좋겠다.
36년생 물이란 흐르는 것을 전제로 유익한 것이다. 48년생 언제나 소인배들의 입이 더 많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0년생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새가슴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때를 놓치고 만다. 72년생 자신이 설정하고 자신이 결단을 내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84년생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그 다른 방향으로 인한 오해가 불화를 만들 수 있다. 96년생 부지런한 사람이 벌레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운처럼 지금은 무조건 일동운이라고 봐도 된다.



소띠: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37년생 이미 중요한 것은 가까운 곳에 있으며 가까운 구역이다. 49년생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차라리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61년생 현재는 일이 많아 바쁘게 움직이고 고독하더라도 결과가 좋다. 73년생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이 인정받는 운·존경의 명예가 따르겠다. 85년생 큰 부자는 하늘이나 내지막 부지런하면 작은 부자는 된다. 자신의 인생에 최악인 존재는 게으른 사람이다. 97년생 명심하라. 자존심이나 오기나 발달하면서 다른 일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호랑이띠: 청업도 검토가 끝났다면 곧바로 시작·실행·실천·행동할 때다.
38년생 지국정성이 효과를 나타내는 운이다. 50년생 가만히 집이나 공간 안에 있는 것보다 활동적인 움직임이 좋은 운을 유도한다. 62년생 이동운을 조심하라. 잠시 여유나 휴식이 산뜻한 마음을 만들어줄 수 있다. 74년생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답답하지만, 오히려 배울 것이 많은 운이다. 86년생 먼저 움직이지 않고 상대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이기는 선수들의 특징이다. 98년생 기운은 만남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토끼띠: 길흉이에 대한 경계가 끝났다면 곧바로 시작·실행·실천·행동할 때다.
39년생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최선과 노력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을 바꾸는 것에 대부분 길한 운이다. 75년생 실력이 있으며 큰 뜻을 품은 사람에게 심중의 뜻을 꼬집힐 기회가 찾아온다. 귀인을 만나는 운이다. 87년생 시작은 화려하지 않아도 미래는 크게 될 사람의 결혼 운이다. 99년생 조금 낮은 자위라도 자신의 실력에 맞는 지리가 전환될 것이다. 11년생 반드시 조언해주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게 좋겠다.



용띠: 취임하고 애를 쓰는 경우라면 무조건 뛰어다닐 생각만 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40년생 조금하게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보람이 나타나겠다. 52년생 피로가 쌓이는 일이 있겠고, 부딪혀서 생기는 사고와 관계에 무리가 갈 수 있다. 64년생 타인의 믿음이 견고하다. 중심을 잊지 않으니 따르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다. 76년생 운이 나쁘지는 않다. 다만 마음이 급할 뿐이다. 88년생 임이 가벼운 사람이 하는 비밀 보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과 다르지 않다. 100년생 중심을 잘 잡고 정신만 잘 차리고 있으면 의외로 얻을 것이 많다.



뱀띠: 지금의 행동은 조만간 이자까지 돌아온다.
41년생 평소의 대인관계를 잘했다면 여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3년생 고군분투하던 가족이 좋은 결과를 얻어 돌아오는 운이다. 65년생 맘은 안으로 굽지만, 자신이나 기족을 위해서 남에게 피눈물을 날리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77년생 선의로 쓰 것이라면 낭비가 아니라니,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면 낭비가 될 것이다. 89년생 재난을 구제하기 위해 자기 손발을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하늘의 보상이 있겠다. 10년생 아주 좋은 친구나 이성을 만난다.



말띠: 가짜 시장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운이다. 제작이 아님을 알고도 마음이 동한다면서 망신수에 걸린다.
42년생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컨디션 난조를 보일 수 있다. 54년생 지금은 강하면 무조건 부려진다고 생각해야 한다. 부드러움만이 이롭다. 66년생 사기꾼 일에 톡 털어 넣지 말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켜라. 78년생 사과하거나 사과받을 일이 있다. 적당한 화해를 시도한다면 사람을 얻게 된다. 90년생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급하게 결혼을 강행하면 안 된다. 20년생 책임 있는 자세와 예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면접 운과 취업에도 유리하다.



양띠: 대부분의 일상에서는 길한 운이다. 과격하거나 조금하지만 않다면 행운을 볼 것이다.
43년생 분명한 선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빨리 처리된다. 55년생 조지일관이라는 말은 이 운기에 염두에 두고 살어야 한다. 67년생 가정사에 불화가 생기더라도 각방을 쓰거나 일탈을 목적으로 외부하지 말아야 한다. 79년생 성실함은 그대의 최대 장점으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91년생 자꾸 다른 방향으로의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이나 본인의 아님은 그 사람과는 맞지 않는 관계일 수 있다. 03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있는 것도 잊을 수 있으니 미소와 어유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원숭이띠: 오래 사귀던 사람이나, 동창생과의 결혼 운이 좋다.
44년생 아주 어려운 고비는 넘겼다. 회복에 전념한다면 크게 차도가 있겠다. 56년생 너무 과격하거나 활동적인 운동이나 행동은 좋지 않게 작용한다. 68년생 겉만 나타나고 속은 드러나지 않으니 상대를 믿을 수 없다. 현재가 나타나야 미래를 논할 수 있다. 80년생 혼자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팀이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승진 운이다. 92년생 명령하고 쾌활한 상대를 만났다면 기쁨이다. 철없는 듯 해도 귀기 기능은 중심을 잡았다. 104년생 가벼운 생각으로 독립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지 마라.



닭띠: 지금의 운은 과정을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좋다는 것이다. 당연히 노력했던 과정이 존재해야 한다.
45년생 매매운은 좋다. 가격을 많이 깎아 주려고 하지 마라. 57년생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다음 일도 어렵다. 69년생 운이거나 사업이나 어려운 남의 품을 하고 있다. 81년생 자존심이나 오래된 일을 끄집어낸다면 대처한 상황으로 커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93년생 아무리 피곤한 하루를 보냈더라도 잡음을 고사하지 말고 피부관리에 신경쓰라. 05년생 애인이 있는 경우 이동은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상대를 오도록 하는 것이 이롭다.



개띠: 빨리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이 급선무이다.
46년생 불안한 상황이어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편하다. 장거리는 피하라. 58년생 경기에 경사가 있게 되니 이는 필시 자손의 경사가 아니면 관록이 몸에 배출시를 하게 되는 운이다. 70년생 목표가 앞에 있으니 머뭇거리 말고 앞으로 걸어가라. 일과 사랑에 모두 해당되는 말이다. 82년생 일을 처리함에 있어 비밀리에 해결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니 염두에 두어라. 94년생 개인적인 이상형이 맞지 않으면 취향도 다르다. 지금의 마음은 불만스러운 상태다.



돼지띠: 감투를 권하는 일이 생기는데 사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년생 가정 또는 단체나 조직에서 대표자로 누군가를 내보내야 할 일이 있다면 여성은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 47년생 아랫사람을 대할 때 오히려 몸을 굽히고 듣는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따를 것이다. 59년생 건강을 체크하지 않으면 남들 좋은 운에 훔쳐만 담당해하게 된다. 71년생 잘한 일이 있는데도 칭찬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니다. 83년생 시작은 비록 작고 불평없으나 점점 운세가 상승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력의 결과가 좋아진다. 95년생 기다리는 여유와 배짱이 있다면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영화 촬영장 그리웠다”…가정파탄 의혹은 “법의 심판에”

영화의 최대 매력이라고 소개했다.

김 감독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북한에 가짜 친양단이 조직되는 게 아이러니”라며 “궁극적으로 보여드 리고자 했던 건 인간의 본질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극 중 친양단원이 부르는 수많은 노래 가운데에는 가수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도 들어 있다.

김 감독은 “사랑은 늘 도망가’는 영화 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곡”이라며 “어떻게 풀어낼지 많이 고민했고 잘 활용했다”고 귀띔했다.

tvN 오디션 프로그램 ‘살생긴 트롯’에서 톱7에 들었던 배우 한정원이 ‘북한 판 임영웅’으로 등장한다. 태항호, 장지 건 등 개성 있는 배우들과 문경민, 최선 자 등 중견 배우들이 ‘가짜 친양단’ 멤버로 출연했다.

/연합뉴스

“(박시후와) 너무 친해진 것이 화면에 보일까봐 걱정됐다”고 웃음 지었다.

‘신의악단’의 설원 장면은 몽골과 형 미있었다”며 “기대가 많이 되는 좋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신의악단’ 메가폰을 잡은 김형협 감

독은 아이러니 속에 숨겨진 휴머니즘이

로 출연했다. /연합뉴스

“(박시후와) 너무 친해진 것이 화면에 보일까봐 걱정됐다”고 웃음 지었다.

‘신의악단’의 설원 장면은 몽골과 형 미있었다”며 “기대가 많이 되는 좋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신의악단’ 메가폰을 잡은 김형협 감

독은 아이러니 속에 숨겨진 휴머니즘이

로 출연했다. /연합뉴스

“(박시후와) 너무 친해진 것이 화면에 보일까봐 걱정됐다”고 웃음 지었다.

‘신의악단’의 설원 장면은 몽골과 형 미있었다”며 “기대가 많이 되는 좋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신의악단’ 메가폰을 잡은 김형협 감

독은 아이러니 속에 숨겨진 휴머니즘이

로 출연했다. /연합뉴스

“(박시후와) 너무 친해진 것이 화면에 보일까봐 걱정됐다”고 웃음 지었다.

‘신의악단’의 설원 장면은 몽골과 형 미있었다”며 “기대가 많이 되는 좋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신의악단’ 메가폰을 잡은 김형협 감

독은 아이러니 속에 숨겨진 휴머니즘이

로 출연했다. /연합뉴스

“(박시후와) 너무 친해진 것이 화면에 보일까봐 걱정됐다”고 웃음 지었다.

‘신의악단’의 설원 장면은 몽골과 형 미있었다”며 “기대가 많이 되는 좋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신의악단’ 메가폰을 잡